

# “긴급생계비 덕분에 아이들과 생활 가능했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왼쪽은 지난해 9월의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에서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 나라 말을 익히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 3월 개강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진이다. C씨는 2003년부터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필리핀 출신의 C씨(31)는 2007년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경기도 과천시에서 살기 시작했다. 부부는 갈등 요인이 적지 않았다. 남편은 25세 연상으로 초등학교를 마쳤고, C씨는 대학을 중퇴했다. 중산층이 비교적 많이 사는 지역이지만, C씨의 거주지는 경마공원 인근의 비닐하우스 주택이었다.

C씨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혼 이듬해부터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고(현재 초등학교 5·4학년), 2013년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자 한국어 교실에 나갔다. 그러나 남편의 전부인 자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자신과 두 아들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잇따르자 C씨는 이혼을 고민했다. 결국 C씨는 지난해 5월 두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인근 군포시에 원룸(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을 구한 뒤 센터를 찾아와 이혼 상담을 신청했다. 공장에서 단순조립 일을 하며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던 C씨에게 법률 지원 못지않게 생계비 도움이 급했다.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곳이 별로 없고, 있어도 월별로 심사 기간을 정해놓거나 증빙 절차 등이 까다로워 고민하던 센터 담당자의 눈에 상시적으로 지원신청 접수와 심사를 진행하는 아산재단(이하 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이 들어왔다. 센터는

2018년 9월 13일 서류를 갖춰 신청했고, 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긴급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했다. 3개월에 걸친 아산재단의 지원 덕분에 C씨는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12월에는 친권은 남편, 양육권은 C씨가 갖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도 결정됐다. 재단은 2018년부터 제도적 한계 등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의 취약 계층을 SOS 복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자립을 돕고 있다. 대상자는 전국의 복지관과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들이 선정해 신청한다. 위기의 내용은 질병과 실업·이혼·사망 등 소득 상실에 따른 요청이 대부분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주거비와 생계비·양육비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2년 차에 접어든 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은 다른 기관의 사업과 달리 심사와 지원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뢰해 서류를 간소화해서 지원요청 건수가 점점 늘고 있다. 센터의 전보람 사회복지사는 “C씨는 많지 않은 남편의 재산 때문에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웠는데, 아산재단이 신속하게 대상자로 선정한 뒤 3개월이나 생계비를 지원해주어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다. C씨가 무척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